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 총력전

조직위원회, 자문회의의 갖고 운영 규정 의결·추진 상황 점검·지역 기업 참여 방안 등 다양한 의견 논의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이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김정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11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조직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회의 책임성과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 조직위원장 위촉과 자문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사항 점검 및 각 분야 정책자문을 통해 대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첫 자문회의를 열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대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해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선진 전주시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시설공단,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대한드론축구협회(KDSA) 등 자문위원 20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김정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11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청렴서약서 서명 △조직위원회 운영 규정 의결 △월드컵 추진 상황 점검 △정책자문 및 협업 사항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운영 물품 후원과 지역기업 참여방안, △드론축구 진로체험활동 연계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으로 △행사장 시설물 사용 및 주차장 운영 지원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및 사전

교육 △외국인 참가자 비자 발급 및 체류 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용 방안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기간 중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과 개막식 및 부대행사 운영 방안, 시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밖에 회의 참석자들은 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행 중심

의 전략과 세밀한 운영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직위는 올해가 드론축구가 전주에서 개발된 지 10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이번 월드컵을 통해 ‘드론축구 중추도시’로서의 전주의 정체성과 기술적·문화적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분야별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위는 앞으로 대회 이전까지 월드컵 대회준비 및 운영사항 전반 자문·지원, 세부 실행계획 수립 지원, 대회의 비전 및 실행력 제고, 월드컵 협력사업 제안 및 발원방향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대 공동 조직위원장(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자문회의는 그간 실무 준비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전략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 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전 세계 드론축구인과 전주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전주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싱크홀 사고 예방 최선

상·하수관로 매설지역 200km 구간 지반탐사 확대 실시

전주시가 상·하수관로 매설지역 등 전주시 전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싱크홀 및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약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전주지역 상·하수관로(관경 500mm 이

상) 매설지역 200km 구간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지반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제대로(중산공원 일원)와 기린대로(전자상가 부근) 등 80



km 구간에 대해 지반탐사를 추진해왔으며 전주한옥마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 노후 관로에 의한 사고우려지역을 중심으로 120km를 추가해 총 200km로 탐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반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달 2억 4000만 원의 지반탐사 예산을 추가 확보한 가운데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5대5 비율로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차량형·핸디형 GPR탐사 장비를 이용한 지반침하, 공동 등 발생 유·무 파악 △탐사자료 분석, 전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한 공동의 정확한 위치 및 크기 확인 △공동 발견에 따른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등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음식부스 운영업소 모집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 축제인 ‘2025 전주비빔밥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음식부스 운영업소를 모집한다.

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5 전주비빔밥축제’에 참여할 음식부스 운영업소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16개소로, 신청 자격은 전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인 업소이다.

비빔 관련 메뉴와 5000원 미만 메뉴 1종을 필수 포함해야 하며, 전체 구성은 1만 원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모든 메뉴는 다화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축제환경을 위해 성인인

증이 필요한 주류 판매는 별도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일반 부스에서는 개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영자는 오는 29일까지 2025 전주비빔밥축제 추진단체인(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자우편(capybara_nak@kakao.com)으로 접수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70-4155-0318)로 문의하면 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비빔밥축제는 해마다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전주시 대표 미식축제로, 올해는 전주의 다양한 음식뿐 아니라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기원 등 지역이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주제의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전주지역 업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생태교육·복합체험’ 인기

전주자연생태관, 최신 전시기법 도입·전시공간 개편

전주한옥마을 인근 전주천변에 위치한 전주자연생태관이 생태도시 전주의 미래를 엿보고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실감형 콘텐츠와 터치디스플레이, 게임형 체험물 등 최신 전시 기법 도입과 전시 공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리뉴얼을 거쳐 지난해 11월 재개관한 전주자연생태관이 시민과 관광객 등 관람객이 보고 듣고, 직접 만지고 참여하며 자연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생태관 1층 ‘Hands-on 생태관’에는 전주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소개하는 코너와 전주의 대표 생물인 쉬리를 만날 수 있는 수족관, 반딧불이와 닥터퍼쉬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건물 2층은 ‘숲속 생태 놀이터’를 콘셉트로 꾸며져 아트를 찾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캠핑 놀이를 하며 자연과 친구가 되고, 나뭇



체험이나 라이브 스케치 코너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함께 키울 수 있다. 놀면서 배우는 구성은 어린이 관람객에게는 놀이의 즐거움을, 보호자에게는 교육적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자연생태관이 새로운 감각으로 자연을 접하는 복합체험의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재개관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9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전주자연생태관에 새롭게 조성해 생태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도시 철학을 실천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교육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권희성 기자

더생생한의원·생생한약방, 이동노동자 건강 응원

전주시가 지역 한의원과 손잡고 무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시는 11일 생생한약방에서 ‘기부물 풀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더생생한의원·생생한약방(원장 이광진·이홍신)은 전주지역 이동노동자를 위한 보원탕 200상자(총 3200팩, 약 80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시가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함께장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부된 물품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재)전



주시복지재단 전주시립을 통해 이동노동자 약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홍신 생생한약방 원장은 “혹서기 야외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국제와이즈멘 전주모악클럽, 선봉기 30대 기탁

국제와이즈멘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모악클럽(이하 국제와이즈멘전주모악클럽)(회장 문종대)은 11일 인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선봉기 30대(1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선봉기는 국제와이즈멘 전주모악클럽 회원들이 더위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모은 성금으

로 마련했다.

문종대 회장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냉방기기 없이 더위를 나고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국제와이즈멘전주모악클럽이 되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점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